

도시 주부의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의 적용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quity & the Decision-Making Styles:
Application of Summated/Global Measure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박사과정 강 기 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Jeong Woo Lee

Doctoral Course : Ki Yeon Ka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While equity theory started as a theory focusing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over the years the theory has been expanded to various other types of relationships including marital relationships.

The present research among 251 housewives examines the perception of equity and the decision-making styles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theory.

The perception of equity was measured by the revised TUW scales and the Walster's global measure. Also, decision-making styles was assessed by means of the 'final-say' scale.

In line with the predictions, the results clearly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equity was a strong predictor variable to the joint decision-making.

I. 서론

지난 40년 동안 부부권력 및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자원이론(resource theory)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이 접근법은 각 배우자가 지닌 교환자원의 양이나 질에 따라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분배된다고 보는 것으로 주요 자원을 더 많이 가진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이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Moen, 1992; Shukla, 1987).

그러나 최근에는 공평성 이론을 적용하여 부부권력 및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가지 방법은 부부권력 및 의사결정권의 분배가 각 배우자의 만족/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간에 공평한 또는 균형 있는 의사결정 분배가 관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가정생활에서의 공평성 정도가 실제로 부부권력 및 의사결정권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은 남편 또는 부인이 가족역할 분담에 대해 공평하다고 평가할 때 공동 의사결정비율도 높으며,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oulihan & Jackson, 1990).

공평성이란 개인들이 교환관계에서 투입한 것만큼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분배적 정의' 규범으로서, 교환관계 내 모든 개인들의 투입 대 결과의 비율(input/output ratio)이 같을 때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공평성의 개념은 주로 이차적인 관계를 연구할 때 사용되어 왔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여러 친밀한 관계의 연구들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부부를 대상으로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시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신이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개인들은 그들 관계에 대한 만족, 친밀, 적응도가 높고(Rachlin, 1987; Traupmann, Petersen, Utne & Hatfield, 1981), 반면에 불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개인들은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Davidson, 1984; Reynolds,

1991;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b) 나타났다.

한편 우리 나라의 부부간 공평성 연구의 역사는 극히 짧으나, "동반자적 부부관계(partnership)"의 개념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점차 공평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박정희, 1998), 부부간의 공평성 여부는 가정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과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평성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그 측정이 쉽지 않으나 서구의 연구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공평성 인지 측정방법들(직접측정, 합산적 측정, 총체적 측정, 합산적 기여측정)을 소개해 왔으며, 우리 나라에 부부간 공평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조정문(1995)도 합산적/총체적 측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공평성 연구들은 직접측정 방법만을 사용하였다. 공평성의 이슈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공평성 측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UW: Traupmann-Utne-Walster Scales of Input, Outcome, and Equity/Inequity를 수정한 합산적 기여측정과 총체적 측정 방법인 Walster등의 Global measure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주부의 공평성 인지 수준을 평가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공평성 인지가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관리 분야 연구에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간 공평성

1) 공평성의 개념 및 측정방법

공평성(equity)이란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서 개인 상호간 관계에 있어서 공정함(fairness)과 관련이 있는 분배적 정의규범이다(Vannoy-Hiller & Philliber,

1989). 공평성은 또 하나의 분배적 정의 규범인 평등성(equality)과 혼동되어 사용되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 두 개념간에는 이론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평등성은 개인의 투여 및 노력과 무관하게 개개인이 동등한 보상 또는 결과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공평성은 개인의 투여 및 노력에 비례하여 평등한 결과를 분배하는 것이다(Kahn & Gaeddert, 1985). 따라서 공평성은 평등성 보다 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조정문, 1994; 차하순, 1983). 그러나 그 측정에 있어서 평등성의 개념은 객관적인 반면에 공평성의 개념은 공평성의 조건보다는 개인의 공정하다는 느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다 융통적이며 주관적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Gilbert, 1988; Harrison-Jay, 1997: 38-39; Rachlin, 1987: 188; Martell, 1990: 9).

최근 연구경향에 따르면 부부관계 연구 시에 평등성보다는 공평성이 더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부부관계 연구에 공평성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결혼에서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박정희, 1998; Kleingeld, 1998).

한편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평성 인지는 연구자나 연구영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어왔다. 첫째는 하나 또는 여러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자에게 배우자에 견주어 누가 더 많이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가를 묻는 직접 측정방법이다. 1문항으로 구성된 Hatfield(1978)의 Global Measure of Equity/Inequity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Davis & Emerson, 1997; Kollock, Blumstein & Schwartz, 1994). 조정문(1994), Van Yperen과 Buunk(1991)는 관계적 공평성과 준거적 공평성을, 박정희(1998)는 세부적 공평성과 전반적 공평성을 이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두번째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전반적 기여와 결과정도 그리고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전반적 기여와 결과정도를 각각 물어서 그 비율로 계산하는 총체적 측정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4문항으로 이루어진 Walster 등(1978a)의 Global Measure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nputs, Outcomes, and Equity/Inequity로서 공식에 따라 공평성 점수를 계산하여 공평성 집단을 분류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

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Cate, Lloyd, & Long, 1988; Davidson, 1984; Snell & Belk, 1985). 세번째는 두번째 방법과 같으나 구체적 항목에 대해 자신의 기여와 결과 그리고 배우자의 기여와 결과를 묻는 합산적 측정방법이다. 46문항으로 구성된 Traupmann 등(1981)의 Traupmann-Utne-Walster Scales: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nput, Outcomes and Equity/Inequity(TUW)가 대표적이며, 범주화 방법은 두번째 방법과 같다. Bartley(1993), Smith와 Schroeder(1984)등이 이 방법을 적용해 연구하였다. 네번째는 합산적 기여 측정방법으로, 세번째 방법과 같이 구체적 항목에 대해 물어 보지만 자신과 배우자의 기여 혹은 투입만을 물어보고 응답자 자신의 점수에서 배우자의 점수를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며 Keith와 Schafer(1985), Regan과 Sprecher(1995)등이 이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상에서 공평성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반적 혹은 총체적 측정방법만으로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합산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Lujansky & Mikula, 1983; Michales, Edwards & Acock, 1984). 한편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투입은 부인의 결과이며 부인의 투입은 남편의 결과이므로 비례적 공평성보다는 남편 또는 부인의 투입만으로 공평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Cook & Emerson, 1978).

2) 공평성 이론 및 부부간 공평성 관련연구

공평성 이론은 Adams(1965)의 사회적 정의이론과 Homans(1961)의 교환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개인 상호간 관계에서 공정함(fairness)과 관련있는 사회심리학 이론이다. 공평성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관계로부터 그들 자신과 상대방의 투입(예: 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기여) 및 결과(예: 관계에서 얻는 만족 및 불만족)를 살펴봄으로서 관계의 공평성 여부를 알아보는데, 공평한 관계는 모든 참여자들이 관계로부터 동등한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

을 얻는 것으로 인지할 때 존재한다. 이때 두 가지 유형의 불공평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관계로부터 얻는 자신의 상대적 이익이 파트너 것 보다 크다고 인지하는 유리한(overbenefited)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인지하는 불리한(underbenefited) 경우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바, 전자는 죄책감을, 후자는 분노를 겪으며 특히 후자의 디스트레스가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불공평한 상황이 존재할 때 개인들은 실질적(actual)·심리학적(psychological) 공평성을 회복시킴으로서 그들의 디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초기의 공평성 이론은 주로 이차적인 사회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간주되었으나, Walster 등이 친밀한 관계에 적용 가능한 수정된 공평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러 친밀한 관계들에 활발히 적용·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공평성 이론을 적용시킨 연구들이 성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는 복잡미묘하여 투입, 산출 및 이익을 계산해 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개인이 공평성에 관심이 더 있으며 공평성의 존재 또는 부재가 개인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공평성 연구는 주로 공평성의 주요 명제를 테스트함으로써 친밀한 관계에 공평성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들은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부부들이 관계에 보다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부부의 적응도가 높고,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며, 우울 정도가 낮다고 밝혀 이를 경험적으로 지지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평성 연구는 공평성과 다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 변인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Rachlin, 1985). 또한 공평성 측정에 관한 연구(Regan & Sprecher, 1995; Smith & Schroeder, 1985; Snell & Belk, 1985), 비교문화연구(VanYperen, & Buunk, 1991), 종단 연구(VanYperen, & Bunnk, 1990) 등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Rachlin,

1987; Wesson, 1996).

2. 부부간 의사결정

1) 의사결정의 개념 및 측정방법

권력의 개념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 미치거나 통제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정의된다. 또한 부부권력은 부부관계의 역동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서 대개 부부나 가정생활의 의사결정 유형으로서 측정된다. 몇몇 연구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한바 있으나(McQuilian, 1998) 의사결정 유형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의 결과를 부부권력의 1차적인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최종 의사결정(final say) 측정이 다른 측정방법보다 더 타당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였다.

2) 의사결정 이론 및 부부간 의사결정 관련연구

지난 40년에 걸쳐 부부권력 및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자원이론과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왔다. 이 접근법은 더 많은 구조적 자원(예: 소득, 사회지위)을 지닌 배우자가 전반적인 부부관계 특히 의사결정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안을 더 많이 가진 여성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지며 의사결정에도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여(Blood & Wolfe, 1960) 이를 지지하였다. 즉 부인이 직업을 가질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며, 주요 경제의사결정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어 결혼생활이 더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Shukla, 1987), 특히 저소득층의 부인이 취업한 경우 가정경제에 아주 결정적 기여를 하므로써 취업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다(Moen, 1992).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직업지위와 소득에서의 차이는 부부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자원 또는 교환이론의 가정들을 지지하지 않았다(O'Connor, 1991). 그러나 Rodman(1967)은 권력관계는 성역할 관련 규범과 배우자가

소유한 자원 둘 다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원이론(normative resource theory)을 제시하였다. 즉 배우자간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가부장제 하에서는 여성의 재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적게 가지는데 Komter(1989)는 이러한 현상을 'hidden power' 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부부권력 및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공정성의 개념을 사용하거나 공정성 이론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Mirowsky와 Ross(1985)는 의사결정권을 개인이 자신의 성과들을 최대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배우자간에 이루어지는 보상과 대가의 교환으로부터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권력 분배가 불공평할 때 지배적 위치의 배우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존경받기 어렵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배우자는 자아개념이 낮아 괴로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에 상대 배우자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통제를 가지 않는 공평하거나 균형 있는 의사결정 유형이 중요하다고 본다(Lindahl & Malik, 1999).

3. 부부간 공정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

권력 및 의사결정과 공정성은 사회교환 이론의 중심 주제로서, 최근 들어 몇몇 연구들이 공정성과 권력간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Cook과 Emerson(1978)은 공정성 이론이 친밀한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체하고, 공정성이 권력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부부권력과 우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공정성 이론이 유용하다고 밝힌 Mirowsky(1985)는 남편과 부인 모두 그들 자신이 지나치게 권력지향적 일 때보다는 부부간의 권력이 균형을 이룰 때 우울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Risman 등(1995)은 직장일과 가사 일의 공평한 분배가 정서적 관계의 질과 공동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oulihan과 Jackson(1990)은 부부의 공정성 인지 정도가 의사결정에서의 복잡성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xton(1989)은 가족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원들의

교환보다는 자원 교환에 대한 부부의 공정성 인지가 부부권력의 평등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Hawkins 등(1995)은 가사일 분담에 대해 부인이 보다 공정하다고 느끼면 의사결정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McQuillan(1998)도 부부간 공정성과 부부권력을 연결하여 연구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4. 관련변인 고찰

공정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이 공정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Reynolds, 1991; Schafer & Keith, 1981)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정성 인지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uunk와 VanYperen(1989), VanYperen & Buunk(199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호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몇몇 연구들(Blood & Wolfe, 1960; Centers, 1971)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른 연구(Ward, 1993)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공정성 인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Wesson(1996)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들의 공정성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Buunk와 VanYperen(1989)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So-Kum Tang(1999)의 연구에서 남편, 부인 또는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Blood와 Wolfe(1960)는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상대적 권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소득과 공정성 인지와 관계는 볼때 소득은 공정성 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Wesson, 1996; Kollock, et al., 1994). 그러나 의사결정 유형과 소득 간에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Mirowsky(1985)의 연구에

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요 가족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하였으나, Gauthier 등(1993)은 부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재정영역의 결정에서만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인의 취업은 부인의 공평성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공평성 인지 점수는 예상한 것만큼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나(Blair & Johnson, 1993)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ennon & Rosenfield, 1994). 한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부인의 취업이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 또는 공동 의사결정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Demaris & Longmore, 1996)도 있으나, O'Connor(1991)의 연구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는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공평성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lair & Johnson, 1992), 또한 성역할 태도는 부부가 지닌 자원보다도 의사결정 유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Zvonkovic, et al, 199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조사대상 주부의 공평성 인지 및 의사결정 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이 공평성 인지 및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및 공평성 인지가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공평성 인지

합산적 방법으로 공평성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TUW(Traupmann-Utne-Walster Scales of Input, Outcome, and Equity/Inequity, 1978) 척도를 수정한 기여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랑, 애정표현, 관심, 이해, 존중, 감사, 인정, 동료감 등에 대한 정서적 영역 9문항과 식사준비, 집안청소, 자녀양육, 의사결정, 의사소통, 가계관리, 가계소득, 친척관계,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영역 8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자신의 기여도와 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4)”로부터 “전적으로 그렇다(+4)”까지 8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공평성 점수는 자신의 기여에서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기여를 빼는 방법으로 구하였으며, Walster 등(1981)이 제시한 ‘cut-off’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점수가 -5~+5이면 응답자가 배우자와 공평한(equitable) 관계에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5보다 작으면 불리한(underbenefited), +5보다 크면 유리한(overbenefited) 관계로 해석한다.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9이다.

한편 총체적 측정을 위해서는, Walster 등(1978)의 Global Measure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nputs, Outcomes, and Equity/Inequit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문항(① 당신은 부부관계에 얼마나 기여합니까? ② 당신의 배우자는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당신이 부부관계로부터 얻는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④ 당신의 배우자가 부부관계로부터 얻는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을 질문하며, 응답범주는 합산적 공평성과 같다. 공평성 점수는 먼저 응답자 자신(자신의 결과 ③ - 기여 ①)과 배우자(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결과 ④ - 배우자의 기여 ②)의 공평성 점수를 계산한 후, 자신의 점수에서 배우자의 점수를 빼는 방법으로 구하였다. 계산된 점수가 '0'인 경우는 공평한, '-'인 경우는 불리한, '+'인 경우는 유리한 관계로 범주화한다.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1이다.

2)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Blood와 Wolfe(1960), Shukla(1987)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임희규(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21문항의 5점 척도를 작성하였다. 하위영역은 재정 영역, 자녀관련 영역, 의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 가족관계 영역, 그리고 여가생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각 의사결정 항목에 대해 '항상 남편' 1점으로부터 '항상 부인' 5점까지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했다. 이를 다시 '부부공동'에 3점, '대체로 남편'과 '대체로 부인'에 2점, '항상 남편'과 '항상 부인'에 1점으로 재점수화 하여 3점에 가까울수록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8이다.

한편 자원인지도($\alpha=.68$), 의사소통도($\alpha=.73$), 성역할 태도($\alpha=.62$)는 모두 5점 척도로서 각각 6문항, 12문항,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인지 정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성역할 태도는 근대적임을 의미한다. 자원인지도는 최동숙(1991), Rowland 등(1985)의 연구를, 의사소통도는 이정순(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성역할 태도는 DeMaris와 Longmore(199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결혼 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업 또는 취업주부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 실시를 앞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1999년 5월 20일~6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80부를 배부하였으나 251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AS/PC+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Pearson's 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연령을 살펴보면, 36~45세가 59.9%로 가장 많았고, 29~35세와 46세 이상은 각각 19.4%, 20.7%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8.5%, 대졸이상이 4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볼 때, 160~240만원의 경우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원 이상 27.3%, 150만원 이하가 22.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주부는 31.5%, 판매/사무직과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는 각각 34.2%와 32.4%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평균 3.39(SD=.48), 자원인지수준은 평균 3.23(SD=.57) 그리고 성역할태도는 평균 2.73(SD=.62)으로 나타났다.

2. 공평성 인지의 일반적 경향

공평성 인지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경향 (N=251)

변인	범 주	빈도(%)	변인	범 주	빈도(%)
연령	29~35세	45(19.4)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50(22.4)
	36~45세	146(59.9)		160~240만원	126(50.3)
	46세 이상	50(20.7)		250만원 이상	65(27.3)
학력	고졸	144(58.5)	부인 취업	판매/사무직	85(34.2)
	대졸이상	101(41.5)		관리/전문직	81(32.4)
				전업주부	79(31.5)

<표 2> 공평성인지의 일반적 경향

		평균	표준편차
합산적	정서적 영역	-0.16	1.08
	일상적 영역	-1.93	1.01
	전체	-1.83	.86
총체적		-6.91	1.74

주 1) 전체는 정서적 영역과 일상적 영역을 합한 것임.

합산적 측정의 경우 공평성 점수는 응답자 자신의 점수에서 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점수를 빼는 방법으로 구하였다. 8점 척도이므로 공평성 점수는 -7~+7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때 0에 가까울수록 응답자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영역별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주부들은 일상적 영역보다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체적 측정의 경우 공평성 점수는 응답자 자신(자신의 결과-기여)과 배우자(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결과-기여)의 공평성 점수를 계산한 후, 자신의 점수에서 배우자의 점수를 빼는 방법으로 구하였으며, 해석하는 방법은 위의 합산적 측정방법과 같다. 총체적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공평성 인지 평균이 -.691로 나타나 합산적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183) 보다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공평성 점수를 이용하여 공평성 집단을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분류방법은 조사도구의 구성 참조).

먼저, 공평한 관계를 살펴볼 때, 합산적(전체)과 총체적 측정 모두 50%를 조금 넘는 응답자들이 남편과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achlin(1987), 조정문(1995), Lennon과 Rosenfield(1994), Blair와 Johnson(1993)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박정희(1998), Davidson(1984), Davidson 등(198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그러나 합산적 측정 보다 총체적 측정의 경우, 불리한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적 측정의 경우,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남편

과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일상적 영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영역들보다 동료감과 같은 정서적 영역에서 응답자의 공평성 인지가 높았다는 Schafer와 Keith(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의사결정 유형의 일반적 경향

의사결정 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전체 의사결정 평균이 2.37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대체로 주요 가정생활 영역들에서 남편과 공동으로 의사결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볼 때, 부인의 주된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인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교육, 가족관계와 여가생활 영역들에서는 공동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영역에서 공동 의사결정 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취업주부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부인이 취업한 경우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며 유리한 위치에 선다는 Shukla(1987)와 Gauthier 등(199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4.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이 공평성 인지 및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이 공평성 인지 및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표 4> 의사결정 유형의 일반적 경향 (3점 만점)

의사결정 영역	평 균	표준편차
재 정	2.21	.44
자녀관련	2.41	.37
의 생활	1.94	.54
식 생활	2.14	.45
주 생활	2.51	.41
가족관계	2.72	.35
여가생활	2.56	.41
전 체	2.37	.26

<표 3> 공평성 집단의 분류 단위: N(%)

구 분	합 산 적			총체적
	정서적 영역	일상적 영역	전 체	
불리한 관계	70(27.9)	105(41.9)	88(35.1)	101(43.6)
공평한 관계	129(51.4)	96(38.3)	127(50.9)	118(50.3)
유리한 관계	52(20.7)	49(19.8)	35(14.0)	13(6.1)

<표 5>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이 공평성 인지 및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변 인	합 산 적						총체적		의사결정 유형	
	정서적 영역		일상적 영역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연 령	.15	.17*	.03	.12	-.04	-.06	-.00	-.01	-.25	-.31***
학 력	-.03	-.05	-.07	-.09	-.04	-.10	.02	.07	.07	.13*
월평균 소득	.01	.02	.04	.17	-.02	-.07	-.08	-.09	.01	.01
부인 취업	.00	.02	.09	.10	.10	.11	.01	.05	.09	.13*
자원인지도	.02	.04	-.05	-.08	.01	.04	.07	.09	.04	.04
의사소통도	.01	.03	-.02	-.06	.05	.10	.03	.07	.09	.14*
성역할태도	.00	.04	-.12	-.15**	-.12	-.29**	-.07	-.08	.08	.09
상 수	225		232		201		90		208	
R ²	.05		.09		.10		.00		.15	
F	2.47*		1.21**		1.68**		1.10		3.64***	

*p<.05 **p<.01 ***p<.001

주: 1) 공평성인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공평한 관계로 분류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것이다.

2) 부인취업의 준거집단은 전업주부이며, 비교집단은 취업주부이다.

3) 의사소통도와 성역할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이라고 해석한다.

같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40을 넘지 않아 투입된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합산적 측정에 의한 공평성 인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역할 태도($\beta=-.29$)로 나타났다. 부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과의 관계를 덜 공평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적 영역에서도 성역할 태도($\beta=-.15$)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성역할 태도는 부인의 공평성 인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평등주의 성역할 태도를 지닌 부인들이 가사노동 분담을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 Blair와 Johnson(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정서적 영역에 대한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인의 연령($\beta=.17$)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과 보다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단계에 있는 부부들은 초기 부부들보다 더 높은 공평성인지 점수를 보였다고 한 Schafer와 Keith(198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노년기 부부들은 오랜 부부관계를 통해 공평성의 이슈를 상쇄하는 “우리의식”이 발달하여 공평성 인지 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Reynolds(199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총체적 측정에 의한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정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비교한 후, 총체적 측정만을 사용할 경우에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합산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제시한 Michaels 등(1984)과 Lujansky와 Mikula(1983)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beta=-.31$), 학력($\beta=.13$), 부인취업($\beta=.13$), 그리고 심리적 변인 중 의사소통도($\beta=.14$)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의 주부일수록 그리고 취업주부인 경우에 가정생활 영

역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 의사결정 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부부의 공동 의사결정이 노년기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밝힌 Blood와 Wolf(1960), Centers등(197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공동 의사결정 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평등주의 의사결정유형을 보인다고 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teil, 1997). 그리고 취업주부의 공동의사결정 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우위의 의사결정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한 Gauthier 등(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5.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및 공평성 인지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 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투입된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을 살펴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연령($\beta = -.35$), 학력($\beta = .15$), 부인취업($\beta = .25$)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단계에서 심리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연령($\beta = -.36$), 부인취업($\beta = .14$), 의사소통도($\beta = .18$)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합산적 측정의 공평성 인지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beta = -.35$), 부인취업($\beta = .17$), 공평성 인지($\beta = .19$)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체적 측정에 의한 공평성 인지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령($\beta = -.31$), 부인취업($\beta = .13$), 공평성 인지($\beta = .12$)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표 7> 참조).

한편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12%로 나타났으나, 이어서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15%로 1단계에 비해 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공평성 인지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합산적 측정의 경우 23%로 8%의 설명력 증가를 나타낸 반면(<표 6> 참조), 총체적 측정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17%로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표 7> 참조).

종합하면, 독립변인들 중 연령과 부인취업은 공동

<표 6>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독립변인 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1

변 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β	b	β	b	β
사 회 인 구 학 적	연 령	-.28	-.35***	-.24	-.36***	-.23	-.35***
	학 령	.13	.15**	.08	.11	.12	.16
	월 평균 소득	.10	.11	.07	.08	.03	.05
	부인 취업	.19	.25**	.11	.14*	.15	.17*
심 리 적	자원인지도			.02	.03	.02	.03
	의사소통도			.15	.18*	.04	.05
	성역할태도			.02	.03	.01	.01
합산적 공평성 인지						.16	.19**
상수		2.86		2.46		2.75	
R ²		.12		.15		.23	
F값		4.75***		3.64***		3.19***	

*p<.05 **p<.01 ***p<.001

주: 1) 공평성 인지의 준거집단은 불리한 또는 유리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며, 비교집단은 공평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다.

〈표 7〉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독립변인 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II

변 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β	b	β	b	β
사 회 인구학적	연 령	-.28	-.35***	-.24	-.36***	-.32	-.31***
	학 령	.13	.15**	.08	.11	.01	.09
	월평균 소득	.10	.11	.07	.08	.06	.07
	부인취업	.19	.25**	.11	.14*	.16	.13*
심 리 적	자원인지도			.02	.03	.05	.06
	의사소통도			.15	.18*	.09	.10
	성역할태도			.02	.03	.01	.02
합산적 공평성 인지						.09	.12*
상수		2.86		2.46		2.45	
R ²		.12		.15		.17	
F값		4.75***		3.64***		3.34***	

*p<.05 **p<.01 ***p<.001

주: 1) 공평성 인지의 준거집단은 불리한 또는 유리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며, 비교집단은 공평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의사소통도를 투입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약해졌으며, 의사소통도도 공평성 인지 변인을 투입하면서 그 영향력이 약해졌다. 특히 총체적 측정에 의한 공평성 인지에 비해 합산적 측정에 의한 공평성 인지가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적용되는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기혼여성의 공평성인지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공평성 측정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더 나아가 공평성 인지가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공평성의 개념 및 공평성 이론을 가정관리 분야에 연결·적용시키는 데 이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산적 측정과 총체적 측정시 공평성 점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조사대상 주부들의 공평성 점수의 평균은 0(완전히 공평한 관계)에

약간 못 미치는 -.691~-0.16으로 나타나 남편과 대체로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평성 집단을 분류한 결과에서도, 두 측정 모두에서 50%를 조금 넘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하였다. 영역별로 볼 때, 일상적 영역보다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공평한 관계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의사결정 평균이 2.37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대체로 주요 가정생활 영역들에서 남편과 공동으로 의사결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에서 부부 공동 의사결정 참여가 낮게 나타났으나 여가, 자녀관련, 재정영역에서 공동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주부의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성역할태도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편과의 관계를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 주부의 의사결정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부인 취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의사소통도를 투입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약해졌으며, 의사소통도도 공평성 인지

변인을 투입하면서 그 영향력이 약해졌다. 특히 총체적 측정에 의한 공평성 인지에 비해 합산적 측정에 의한 공평성 인지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공평성 연구가 거듭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공평성 측정방법들이 소개되어 왔으나 우리 나라의 공평성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특히 공평성 인지는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그 측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단일문항 또는 다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자에게 배우자와 비교하여 누가 더 많이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가를 직접 묻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평성 이론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에서와 같이 관계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투입과 결과, 그리고 응답자가 인지한 배우자의 투입과 결과를 통해 공평성을 계산하는 합산적/총체적 측정법이 보다 정교화된 측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두 측정방법간에 공평성 인지 점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종속변인에 대한 공평성 인지의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합산적 측정법은 결혼생활의 세부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총체적 측정법은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 공평성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합산적 혹은 총체적 측정법을 선택·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합산적/총체적 측정 척도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므로 추후 연구를 더해 가면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평성의 개념을 관계만족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다루어왔다. 따라서 공평성 인지에 영향 미치는 독립변인에 대한 연구나 설명은 그리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역할 태도가 공평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선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고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또는 부인취업 여부에 따라 공평성 인지 수준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평성 인지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주부의 공평성 인지는 공동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가정관리 분야 연구에서 공평성이론 및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35(2), 345-358.
- 2) 박정희(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07-122.
- 3) 임희규(1992). 부부의 의사결정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3), 559-584.
- 5)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안가정학회지* 36(9), 139-152.
- 6) 차하순(1983). *형평의 연구 -17, 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일조각.
- 7) Bartley, S. J.(1993). The influence of personal, positional, and resource power on equity in dual-earner marriages(marital power, positional, power).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h.D.
- 8) Blair, S. L., & Johnson, M. P.(1993). Wive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intersection of housework and ideolog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570 -581.
- 9) Blood, R. O., & Wolfe, D.(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The Free Press.

- 10) Cate, R. M., Lloyd, S. A., & Long, E.(1988). The role of rewards and fairness in developing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May), 443-452.
- 11) Cook, K. S., & Emerson, R. H.(1978). Power, equity and commitment in exchang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721-739.
- 12) Davidson, B.(1984). A test of equity theory for marital adjus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36-42.
- 13) Davis, L. E., & Emerson, S.(1997). Black dating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equity, satisfaction, power and romantic alternatives and ideals partner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3(2), 148-165.
- 14) Gauthier, D.K., Forsyth, C.J., & Bankston, W.B.(1993). The effects fo wife's occupation on the structure of decision-making authority in the offshore oilworker's famil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23, 87-98.
- 15) Gilbert, L. A.(1988). *Sharing it all: The rewards and struggles of two-career families*.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16) Hawkins, A. J., Marshall, C. M., & Meiners, K. M.(1995). Exploring wives' sense of fairness about family work: An initial test of the distributive justice frame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16(6), 693-721.
- 17) Houlihan, M., M. & Jackson, J.(1990). Decision making of satisfied and dissatisfied married coup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1), 89-103.
- 18) Kahn, A., & Gaeddert, W.(1985). From theories of equity to theories of justice:The liberating consequences of studying women. In V. O'Leary, R. Ungert, B. Wallston(Eds.), *Women, gender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19) Keith, P. M., & Schafer, R. B.(1985). Equity, role strains,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men and women. In W.A. Peterson, & J. Quadagno (Eds.), *Social bonds in later life*(pp. 37-49).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20) Kleingeld, P.(1998). Just love? Marriage and the question of justice. *Social Theory & Practice* 24(2), 261-282.
- 21) Kollock, P., Blurnstein, P., & Schwartz, P.(1994). The judgment of equity in intimate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340-351.
- 22) Komter, A.(1989). Hidden power in marriage. *Gender and Society* 3(2), 187-216.
- 23) Lennon, M. C., & Rosenfield, S.(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The importance of op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506-531.
- 24) Lindahl, K. M., & Malik, N. M.(1999). Observa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power relations with parenting in the Triad.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2), 320-331.
- 25) Lujansky, H., & Mikula, G.(1983). Can equity theory explain the quality and the stability of romantic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1-112.
- 26) McQuilian, J.(1998). *Gender and marital power: Explaining the division of labor, perceived equity, and distress among two earner couples*. University of Connection Ph.D.
- 27) Michaels, J. W., Edwards, J. N., & Acock, C.(1984).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inequality, inequity and outcom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4), 347-357.
- 28) Mirowsky, J.(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n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592.
- 29) Moen, P.(1992). *Women's two roles:A contemporary dilemma*. Auburn House, New York.
- 30) O' Connor, P.(1991). Women's experience of power within marriage: An inexplicable phenomenon. *Sociological Review* 39(4), 823-842.

- 31) Rachlin, V. C.(1987). Fair vs. equal role relations in dual-career and dual-earner families: Implications for family interventions. *Family Relations* 36, 187-192.
- 32) Regan, P.C., & Sprecher, S.(1995). Gender differences in the value of contributions to intimate relationships:Egalitarian relationships are not always perceived to be equitable, *Sex Roles* 33, 221-238.
- 33) Reynolds, W. A.(1991). Equity, equality, and reward: As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ffect, and gender in later life marriages(elderly), University of Kentucky. Ph.D.
- 34) Risman, B. J., & Johnson-Sumerford, D. (1998). Doing it fairly: A study of postgender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0(1), 23-41.
- 35) Schafer, R. B., & Keith, P. M.(1981). Equity in marital rol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May), 359-367.
- 36) Sexton, C. S.(1989). Couples' career orientat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33-942.
- 37) Shukla, A.(1987). Decision-making in single- and dual-career families in Indi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621-629.
- 38) Smith, M.J., & Schroeder, D.A.(1984). Concurrent and construct validities of two measures of psychological equity/inequity. *Psychological Reports* 54, 59-68.
- 39) Snell, W.E., & Belk, S.S.(1985). On assessing "equity" in intimate relationships.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5(1&2), 16-24.
- 40) So-Kum Tang, C.(1999). Marital Power and Agg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of Hong Kong Chinese Famil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6), 586-603.
- 41) Steil, J. M.(1997). Marital equality: Its relationship to the well-being of husbands and wives. Thousand Oaks, CA: Sage.
- 42) Traupmann, J., Petersen, R., Utne, M., & Hatfield, E.(1981) Measuring equity in intimate relation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467-480.
- 43) Vannoy-Hiller, D., & Philliber, W.W.(1989). *Equal Partners:Successful women in marriage*. Newbury Park, CA:Sage Publications.
- 44) VanYpern, N. W., & Buunk, B.(1991). Sex-role attitudes, social comparison, and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169-180.
- 45) Walster, E., Walster, G.W. & Berscheid, E.(1978b). Equity and premarital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 82-92.
- 46) Ward, R. A.(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5(2), 427-439.
- 47) Wesson, L.(1996).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career families(role shar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D.
- 48) Zvonkovic, A., Greaves, K., Schmeige, C., & Hall, L. (1996). The marital construction of gender through work and family deci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1-100.